

# 로스쿨 사회배려층 전형 7%로 확대... '변시낭인' 우려

〈높은 변시 경쟁률에 이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들〉

## 법학전문대 개정안 심의·의결 2000명 중 최소 140명 해당 변시 합격률도 낮아져 우려

교육부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신입생 선발에서 사회 배려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의무적으로 7% 이상 뽑도록 한 데 대해 대학들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고 성토했다. 로스쿨로 입학해봤자 변호사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마당에 '변시 낭인'만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8일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 신입생 선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뽑는 특별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7%를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신체적·경제적 열악한 계층 5% 이상 선발을 권고했으나 개정안은 의



지난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이우영 교수(오른쪽)가 '변호사 시험제도 및 취업관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적으로 7% 이상 선발토록 했고 대상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됐다. 특별전형 대상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모집부터 특별전형 선발 하한선을 지키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장학금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25개 로스쿨이 올해 선발하는 2000명 중 최소 140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전국 로스쿨 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으로 특별전형 인원이 지난해 보다 24명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가 확대됐지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이들이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로스쿨 선발시험이 LEET(법학적성시험), 공인영어 성적, 학부 성적 등 정량 평가 성적으로 선발하는 만큼 일반전형 입학생들보다 이들 성적이 낮은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인재를 의무적으로 20%씩(강원·제주는 10%) 선발해야 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와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어 이들 대학의 변호사 합격률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전체 평균 합격률(49.35%)보다 높은 대학은 서울시립대(45.33%)를 제외한 13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 로스쿨이었다. 지방 대학 중 영남대(59.79%)만 유일하게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률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인재를 배려하고 사회배려층을 더 뽑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져 '변시 낭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의)입구는 열어놨는데 출구 전략(변호사시험 합격)은 없다"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향후 법조인 수급에 맞춰 정한 만큼, 변호사 합격률을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면접위원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조항 등 학생선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지방 대 대학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정하게 학생들을 뽑으라고 하는데, 대학들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의 대다수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의전원도 아니면서 공정하게 뽑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K쇼핑 제3기 쇼핑호스트 21일까지 공개 모집

K쇼핑은 오는 21일까지 제3기 쇼핑호스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연속 쇼핑호스트를 모집하고 있는 K쇼핑은 앞서 두 차례 공개모집에서 지원자 전원에게 카메라 테스트를 제공했다. 이번 모집 또한 모든 지원자에게 오디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는 학력 제한 없이 신입과 경력 쇼핑호스트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1차, 2차 카메라 테스트 및 역량 면접을 거쳐 임원 면접 후 인턴십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경력직은 1차 카메라 테스트와 인턴십 과정이 면제된다.

K쇼핑은 TV 판매방송뿐만 아니라 예



능과 결합된 쇼핑방송 등 다채로운 미디어 커머스 방송에 걸맞은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KTH 홈페이지와 K쇼핑 채널, 온라인몰,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블라인드 영향? "채용시 학벌 안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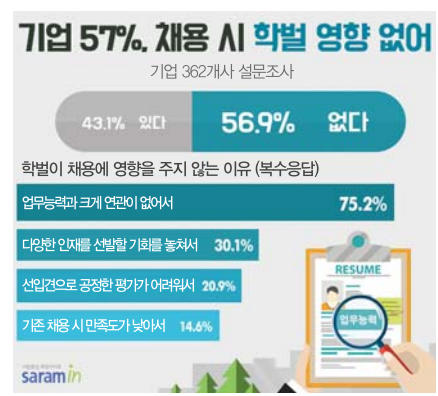
(기업 56.9%)

직무 적합성 중시 문화 자리잡아  
채용 평가에 미치는 비율 '34.8%'

블라인드 채용과 직무 적합성을 중시하는 기업 채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직원 채용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던 학벌 중시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인은 기업 362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시 학벌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6.9%가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없는 이유로는 '업무 능력과 크게 연관이 없어서' (75.2%,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할 기회를 넓혀서' (30.1%), '선입견이 생겨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져서' (20.9%), '기존 채용시 만족도가 낮아서' (14.6%) 등이 있었다.



실제 학벌이 채용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평균 34.8%로 채용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학벌이 좋은 신입사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입사자들과 '차이가 없다' (61%)고 답했고, '만족도가 높다'는 29.3%, '오히려 만족도가 낮다'는 9.7%였다.

학벌이나 성별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분적으로 실시' (20.2%)하거나 '전면 실시' (4.7%)한다고 답해 기업 4곳 중 1곳은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블라인드 처리하는 자격조건으로는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 (50%, 복수응답), '가족관계' (48.9%), '토익 등 공인영어 성적' (40%), '최종학력' (37.8%), '출신학교' (37.8%), '결혼여부 등 개인신상' (36.7%) 등의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거점국립대학교 제전 10·11일 부산서 열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전호환 부산대 총장)는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학생 선수단과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체육 행사인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오는 10~11일 이틀간 부산대 경암체육관과 대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회원 대학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이번 행사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각 대학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10일에는 개회식과 배



구·배드민턴·여자발야구 등 구기종목 예선 체육행사가 열리고 저녁에는 대운동장 야외에서 축하공연과 대학별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된 리셉션과 만찬 행사가 진행된다. 11일에는 구기종목 결승과 단체종목 경기가 치러지고, 각 대학 총장들도 800m 계주에 참가해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018 후기 신입생 모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신영섭)은 2018년 후기 석사과정(신·편)입생 및 문화예술인지도자과정 신입생 모집을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http://gsca.dongguk.edu)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8

일 밝혔다. 모집 학과는 ▲문예창작학과(시·창작, 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다. /한용수 기자

## 잘 하지 못하는 말 "부모님 사랑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학생들이 평소 마음에는 두고 있으나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 1위로 '사랑해요'가 꼽혔다. 반면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 1위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어머йна를 앞둔 지난 5월 2일~4일까지 대학생 2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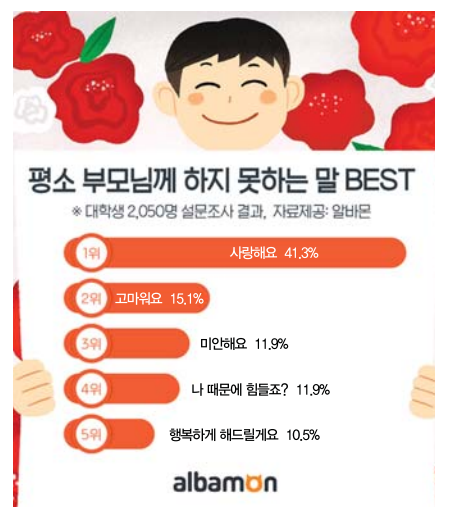
조사결과 대학생 대다수(91.9%)는 '평소 마음에는 있지만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사랑해요' (41.3%)가 가장 많았고, '고마워요' (15.1%), '미안해요' (11.9%), '나 때문에

## 가장 쉽게 내뱉는 말 "제가 알아서 할게요"

힘들지요' (10.5%),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4.3%) 등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주로 꼽혔다.

반대로 대학생 80.6%는 평소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이 있다고 했고, 그런 말 중 '제가 알아서 할게요' (2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 몰라요' (16.8%), '아 쯤!' (15.9%), '네~' (14.1%), '지금 좀 바빠요' (6.1%) 등 부모님과 대화의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말과 말투가 대다수였다.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로는 '취업' (19.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살가운 대화' (17.6%), '걱정 끼치지 않기' (16.1%), '좋은 학점으



로 장학금 받기' (14.3%),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기' (13.8%), '부모님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기' (12.4%), '건강' (3.3%) 등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효도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